다시 찾게 되는 매력… 올해도 '보졸레 누보'



안 상 미 _{기자의} Why, wine 🔞

올해는 11월 17일이다. 11월 셋째주 목요 일이니 말이다.

"보졸레 누보가 도착했다(les Beaujolais Nouveau arrivent)."

올해도 어김없이 보졸레 누보가 찾아온 다. '보졸레(Beaujolais)'는지역이름, 누보 (Nouveau)는 '새롭다'는 말이다. 말그대로 프랑스 보졸레 지역에서 생산되는 햇와인이 다. 그 해 9월 초에 수확한 가메(Gamay) 품 종포도를 4~6주의 짧은 기간만 숙성시켜 시 장에 내놓는다.

품종도, 지역명도, 아니면 창시자(?)의 이 름도 아닌 '누보'가 명칭에 박힌 것은 양조 방식 등을 엄격히 정해놓은 규정 때문이다. 1951년 당시 법령에 따르면 원산지명칭통제 를 받는 AOC 와인은 12월 15일까지 판매될 수 없었다. 시위 등으로 얻어낸 것이 병 라벨 에 '누보'를 표시하는 조건이었다. 그것도 1951년 빈티지가 출시되기 불과 이틀 전인 11월 13일에 승인을 받으면서 그 해 보졸레 누보가 탄생할 수 있었다.

보졸레 누보가 원래부터 11월 셋째주에 나온 것은 아니었다.

처음 15년 동안은 그때 그때 상황에 따 라 소비자에게 선보이는 날이 바뀌었다. 1967년부터는 11월 15일로 못을 박았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어떤 해에는 일요 일이나 월요일이 되면서 날짜에 맞춰 운송



2022년 보졸레 누보.



프랑스 부르고뉴 남쪽에 위치한 포도재배 지역 보졸레.

을 보장할 수 없었고, 와인샵이나 레스토 랑이 문을 열지 않아 구할 수 없는 경우도 생겼다.

/보졸레 누보 홈페이지

그래서 정해진 게 날짜가 아닌 셋째주 목 요일이다. 매년 축제처럼 즐길 수 있게 된 것 도 이때부터다.

매년 보졸레 누보를 찾게 하는 매력은 올 해의 작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솔직함이 다. 양조 기간이 길어봐야 한 달 반이다 보 니 숙성과정을 통해 구조나 풍미를 입맛대 로 바꾸기가 어렵다. 보졸레 누보는 포도 가 자란 해의 기후와 환경을 그대로 보여준

예를 들면 보졸레 누보 2018년 빈티지는 1년 내내 햇빛이 내리쬐면서 검은 과실과 향 신료, 감초향까지 느낄 수 있었던 반면 서늘 했던 2021년 빈티지는 딸기향의 신선한 맛 이 두드러졌다.

또 다른 매력은 '쉽다'는 것. 서빙 온도를 크게 따질 일도, 마실 시기를 논할 필요도 없

보졸레 누보는 가메 품종으로 탄산 침용 해 만든다. 압착하지 않은 송이를 통째로 발 효하는 방식이다. 으깨지 않은 포도알 안에 서 세포 내 발효가 진행되고. 그 결과 탄닌과 알코올 도수는 일반 레드와인보다 낮지만 특유의 과일풍미를 지니고 부드러운 와인이 만들어진다. 피자나 가벼운 소시지, 돼지고 기 요리나 스테이크와도 잘 어울린다. 살짝 차게 해서 먹으면 굴같은 해산물과도 맛있 게 즐길 수 있다.

당연히 와인을 받아들자마자 맛보는 것도 좋지만 보졸레 누보 역시 다른 와인들 처럼 8개월에서 12개월 동안은 맛있게 보관할 수 있다. 겨울을 지나 봄에 첫 야외 바베큐 를 할 때 오픈해도 밀리지 않을 과일향이다. 만 약 2015년과 같은 소위 '그레이트 빈티지'라 면 10년까지도 묵혀볼 수 있다.

올해도 어김없이 보졸레 누보를 예약했 다. 2022년 빈티지의 첫 맛을 기대하며.



주말은 책과 함께

책임을 혼자 짊어진 사람들에게

어제 만난 친구는 '이태원 핼러윈 사고' 후지 인들의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 연락을 돌렸다고 했다. '괜찮다'는 회신을 받으면 "참, 다행이네 요"라고 답장을 했는데 문득 그런 저 자신이 혐 오스러워졌다고.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궁금해 이유를 물었다. 친구는 "내 주변의 안위 만을 챙기는 이기적인 사람 같아 갑자기 소름 이 쫙 끼쳤다"며 "가족과 친구 중 이태원 참사 희생자가 있는 사람이 옆에서 이 이야기를 들 었으면 마음이 무너졌을 것이다"는 답이 돌아 왔다.

필자는 눈에는 이 친구가 제우스에 대항했다 가 패해 그 벌로 평생 하늘을 떠받들며 살게 된 아틀라스처럼 보였다. 한낱 인간이 짊어지기엔 너무 큰 마음의 짐을 떠안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들었다.

친구는 지난달 29일 밤 "압사될 것 같다"는 112 신고를 무시한 경찰 수뇌부도 아니고, 안전 컨트 럴타워로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서울시장도 아니고, 관내에서 3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가 났는데도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했다며 책임을 회피한 용산구청장도 아닌데 시 민 중 한 사람으로서 다른 이웃들을 지켜주지 못 했다는 죄책감을 느끼며 고통스러워 하고 있었

'괜찮다는 거짓말'은 아픈 게 뭔지 모른 채 책 임감만으로 모든 일을 혼자 짊어지고 가는 사람



괜찮다는 거짓말

마거릿 로빈슨 러더퍼드 지음/송섬별 옮김/북하우스

에게 꼭 필요한 책이다.

저자는 자신과 주변 환경을 통제해야 한다는 걱정과 욕구를 느끼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당신 이 통제하는 것들에 대해서만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걱정은 통제 욕 구를 부르고, 통제 욕구는 다시 더 큰 책임감을 부르며, 결과적으로 당신은 지쳐버리고, 그러면 숨겨진 분노나 억울함이 생긴다"며 이러한 분노 와 억울함으로부터 벗어날 방법을 찾아야 한다 고 조언한다.

348쪽. 1만7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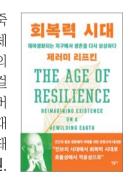
/김현정 기자 hjk1@

회복력 시대

위기의 인류를 위한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 회복 력 시대다. 바이러스가 계속 출현하고 기후는 따뜻 해지고 있으며 지구는 야생으로 돌아가는 중이다. 산업 발전을 이끈 효율성의 원칙이 우리를 지구의 지배적인 종으로 두었지만 결국 자연계의 파멸을 이끌었다.

어떻게 대멸종을 피하고 삶을 지속할 것인가? 세 계적인 미래학자이자 경제·사회사상가 제러미 리

프킨은 '회복력 시대'에서 죽 어 가는 진보의 시대를 해체 하고부상하는새로운문명의 서사를 제시한다. 50년에 걸 쳐 글로벌 경제와 사회, 거버 넌스 혁신, 기후변화 등에 대 해 연구한 결과가 집대성돼 있다. 432쪽. 2만6000원.



제러미 리프킨 지음/안진환 옮김/민음사

김경율, 서민 지음/천년의상상

맞짱: 이재명과의 한판

'국민해괴사' 김경율이 정면 승부를 건 불법 비 리 의혹의 주역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다. 김 회계사 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가장 먼저 SNS 와 언론을 통해 공론화했고, 그외 이재명과 관련된 각종 의혹들에 대해서도 그의 주특기인 숫자와 논 리로 '팩트 폭격'을 해 왔다.

이책 '맞짱-이재명과의 한판'을 쓰면서 흩어져 있던 자료들을 다시 뒤지고 분석해 그간 해왔던 비

판들을 더욱 날카롭게 만들 었다. 그리고 마침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되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재명의 5대사 법 리스크, 그 의혹들에 대한 자신의 모든 것을 담은 탐구 를 마쳤다.

328쪽. 1만9500원.

에마뉘엘 토드 지음/김종완, 김화영 옮김/피플사이언스



제3차 세계대전은 이미 시작되었다

세계적인 역사인류학자이자 사회학자인 에마뉘 엘 토드가 이번에도 날카로운 정세 예측을 내놓았 다. "푸틴은 과거 소련과 러시아 제국의 부활을 꿈 꾸며, 동유럽 전체를 지배하려고 한다. 우크라이나 문제로 푸틴과 교섭해 타협하는 융화적 태도는 결 국 히틀러의 폭주를 허락한 1938년 뮌헨회담의 전 철을 밟을 것이다." 서방측 미디어는 연일 이렇게 보도를 이어나가고 있으나 과연 이와 같은 주장이

타당한가.에마뉘엘토드는오 히려 근본적으로 '우크라이나 의 NATO 가입은 절대 허용 할 수 없다'고 러시아가 명확 하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서방측의 처사가 이번 전쟁의 주된 원인이라 주 장한다. 192쪽. 1만6000원.

